



## 4월 8일 미국 하늘에서 우주쇼 '개기일식' 펼쳐진다

오는 4월 8일 미국 하늘에서 개기일식이 펼쳐진다. 개기일식은 '태양-달-지구' 순서로 일직선이 될 때,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현상을 말한다. 달의 시직경이 태양의 시직경보다 커서 태양을 다 가릴 수 있을 때 일어난다. 또한 태양이 달에 일부 분만 가려지면 부분일식, 해와 달이 겹쳤으나 달이 해를 전부 가리지 못해 반지 모양으로 가려지면 금환일식이라 부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우주쇼인 개기일식은 태양 빛이 차단되면서 갑자기 밤이 된 것처럼 어두워지고, 갑자기 온도도 뚝 떨어져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기일식은 멕시코와 북미 일부 지역에서 관측 가능하다. 멕시코에서 태평양 시간 기준 오전 11시 7분 시작하는 일

식은 미국과 캐나다 대륙을 횡단해 동부 시간 오후 5시 19분 대서양을 거쳐 사라진다. 텍사스 남부에서 오후 1시 40분, 아칸소 오후 1시 51분, 일리노이 오후 2시, 펜실베니아 오후 3시 16분, 뉴욕 북서부 오후 3시 18분 개기일식이 발생한다. 텍사스 남서쪽에서 시작해서 대략 나이아가라폭포를 관통하는 경로이다.

한 장소에서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분 28초로, '그레이트 아메리칸 이클립스'로 불렸던 지난 2017년 개기일식 관측 시간의 2배에 달한다. 이는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경로가 200 마일로 두 배 넓기 때문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올해 일식 관측 가능 지역에 약 3160만 명의 미국 주민이 살고 있다고 추정했다. 나사는 다음 개기일식을 20



▲ 2017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촬영한 개기일식 모습. 사진=shuttersto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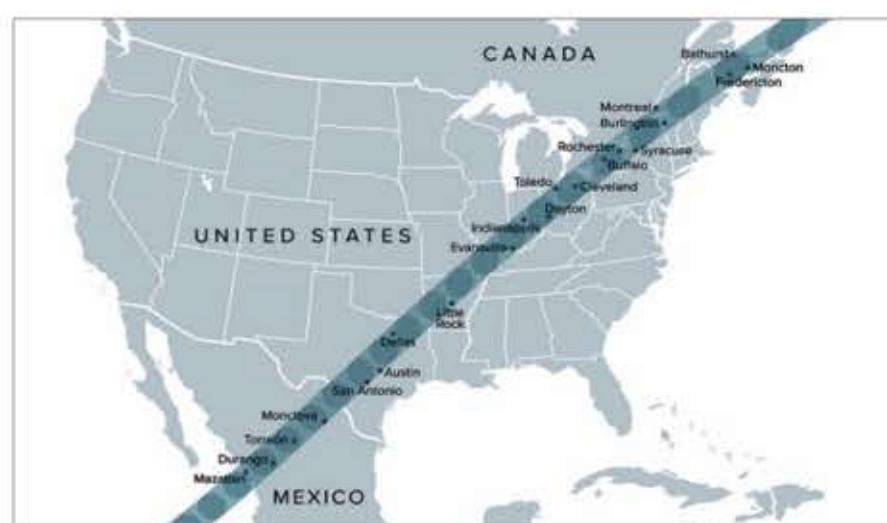
년 후인 2044년 8월 23일으로 보고 있다.

일식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보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선글라스는 자외선 일부를 차단해 줄 뿐 눈을 태양 빛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선글라스는 물론 필터를 덧대지 않은 망원경, 쌍안경,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 모두 위험하며, 이렇게 할 경우 시력이 손상되고 심하면 실명할 우려도 있다. 일식을 보기 위해서는 태양 필터가 장착된 망원경이나 특수 안경 등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또한 태양 필터가 있는 보호장비를 활용하더라도 3분 이상 관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오는 4월 8일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을 앞두고 델타항공은 일식 지역을 따라 운항하는 비행기를 띠워 여행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델타항공 측에 따르면 4월 8일 오후 12시 15분 오스틴 출발 디트로이트행 1218편 탑승객들은 일식 과정 전체를 지켜볼 수 있다. 해당 항공편은 창문이 큰 에어버스 A220-300 기종으로 운행된다.

또 같은 날 디트로이트발 화이트 플레인즈행 5699편, LA출발 델러스-포트워스행 924편, LA출발 샌 안토니오행 2869편, 솔트 레이크 시티발 샌 안토니오행 1001편, 솔트 레이크 시티발 오스틴행 1683편에서도 일식 광경을 부분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 미국을 통과하는 개기일식의 예상 경로. 그래픽=shutterstock

**오픈스페셜**  
UP TO **40%**  
**SALE** (\*혼수이불 제외)



**한국 면 잠옷 세트  
30% SALE**



**Grand Opening**

# 이불명가

한국 신세계 백화점에 들어가는

**아르페지오 혼수이불**

혼수이불, 고급 모달 이불  
알러지케어 침구류  
한국산 양모이불(물빨래 가능)  
호텔용 고밀도 이불  
디즈니 캐릭터 잠옷(면 100%)  
기숙사용 한국이불

4560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T. 714.735.8836  
비치스파 옆

Rosecrans Ave  
(비치스파) ★ 이불명가 ★  
Beach Blvd  
Los Coyotes Dr